5. 문화 규칙

우리는 딱딱한 규칙보다, **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문화**를 더 믿습니다. 정해진 틀 없이 일하지만, 서로를 배려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 팀만의 '작은 원칙'들을 마음속에 품고 일합니다.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, 우리가 함께 잘 일하기 위해 자주 떠올리는 말들입니다. 이 말들 속엔 우리가 바라는 팀의 분위기와,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

1. 시간은 약속보다 더 큰 신뢰예요.

12시는 12시. 1분도 소중하니까요.

- 회의, 외부 미팅, 마감 등 모든 일정은 정시에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.
- 유연근무제라도 합의된 시간에는 모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.
- 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 사전에 공유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합니다.

2. 호칭은 가볍게, 태도는 진지하게.

직급은 벗고 이름으로, 대신 일엔 책임감 있게.

-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이름 또는 닉네임을 기본으로 하며, 직급 중심의 호칭을 지양합니다.
-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하지만, 의사결정 구조와 역할 책임은 분명히 따릅니다.
- 토론과 피드백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되, 결과에 대해서는 주도자가 책임을 집니다.

3. 길게 말하지 말고, 명확하게 말해요.

보고는 짧게, 근거는 정확하게. 감정보단 데이터!

- 주간 보고, 상황 공유 등은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하되, 핵심 데이터는 빠짐없이 포함합니다.
- 회의 시에는 문제의 원인보다 해결 방안에 집중하고, 의사소통은 근거를 중심으로 합니다.
-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는, 실제 도움이 되는 공유를 추구합니다.

4. 잡담은 팀의 산소예요.

쓸데없는 얘기 속에 진짜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.

- 커피챗, 점심 대화, 퇴근 후 맥주 한 잔은 팀의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
-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장려하지만, 험담이나 배제성 농담은 금지합니다.
- 회의실 외에서 나눈 대화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팀과 자유롭게 공유하세요.

5. 먼저 본 사람이 히어로예요.

쓰레기든 문제든 발견한 사람이 해결의 시작이에요.

- 사무실, 슬랙, 코드, 고객 이슈 등 무엇이든 '먼저 본 사람'이 상황을 알리거나 처리합니다.
- "내 일 아니다"라는 태도보다는, 함께 해결하는 팀워크를 우선합니다.
- 단, 구조적 문제라면 즉시 리더나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개선합니다.

6. 쉴 땐 당당하게, 놀 땐 완전히.

휴가는 충전이에요. 눈치 주지 말고, 눈치 보지 말고.

- 연차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팀 내 사전 공유만 잘 하면 됩니다.
- 정시 퇴근도 당연한 권리이며, 휴가 중인 동료에게는 연락을 삼가는 문화를 지향합니다.
- "퇴근해?", "휴가 좋겠네~" 같은 농담도 서로 피합니다.

7. 일을 시작할 땐 '왜'부터 물어요.

목적이 분명하면, 방향도 자연스럽게 생겨요.

- 어떤 업무든 '왜 이 일을 하는가', '누구를 위한 것인가'를 먼저 정리하고 공유합니다.
- 실행 전 목적과 KPI를 설정하고, 이해 관계자와 조율합니다.
- 목적이 흔들릴 때는, 팀원과 다시 한 번 방향을 점검합니다.

8. 결정은 용기, 책임은 배움.

결과보다 중요한 건 결정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.

- 결정권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, 실행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따릅니다.
- 실패가 발생하더라도,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습의 기회로 삼습니다.
- 책임을 묻기보다,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.

9. 좋은 팀은, 서로 말할 수 있어요

좋은 피드백은 애정을 담은 응원이에요. 문제는 조용히 묻기보다 함께 풀어요.

- 서로의 성장을 위해 칭찬과 제안은 솔직하고 빠르게 주고받습니다.
- 뒤늦은 피드백보다, 일의 흐름 속에서 적시에 전달하는 걸 우선합니다.
- 다만 공개 피드백은 반드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며, 사람보다 행동에 집중합니다.

10. 함께 일하면, 더 멀리 갑니다.

좋은 팀워크가 최고의 생산성이에요.

- 혼자 해결하려 애쓰기보다, 도움을 요청하고 협업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
- 사소한 공유나 체크인도 팀의 리듬을 만들고, 실수를 줄입니다.
- 성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팀의 힘에서 나옵니다.